

## 부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발생, 역학조사와 방역 총력 대응

- 반경 약 10km 내 폐사체 수색, 포획 및 방역 강화 등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1월 14일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1월 18일 양성으로 확인되어, 역학조사 및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21일 부산 금정구에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역 최초로 발생한 이후, 29일 만에 부산광역시에서 추가로 발생이 확인되었다.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당시 최인접 발생지점인 청송군, 포항시와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산에서 두 번째로 양성이 확인된 야생멧돼지는 금정구 발생지점으로 부터 17km 떨어진 사상구 엄광산에서 포획된 것으로, 해당 지역은 시가지로 둘러싸여 있어 기존 발생지역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이동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다.

환경부는 1월 18일 부산시와 사상구, 금정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부산시청과 사상구청, 금정구청 담당자에게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환경부는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발생지점에 대한 소독과 방역조치를 이미 실시했으며, 반경 10km 내 폐사체 수색과 포획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전파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역학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울산 등 비발생 지역까지 포함한 지자체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자체 대응태세 점검 등을 통해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붙임 부산 사상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 현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책임자	과 장	이현준 (044-201-7491)
		담당자	사무관	임종원 (044-201-7492)
담당 부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책임자	과 장	정원화 (062-949-4310)
		담당자	주무관	지성인 (062-949-4340)



